

해설 시나리오

1. 프로그램 진행 개요

프로그램명	비자향 가득한 백양골 자연·문화해설	해설사	김한나
해설주제	흔하게 볼 수 있는 자연물을 통해 자연의 가르침을 배워본다.		
대상 및 인원	중학생	소요시간	20분

2. 세부 시나리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비자향 가득한 숲에서 자연해설을 하게 된 내장산국립공원백암사무소에 근무하는 김한나입니다. 오늘 해설의 주제는 '자연의 가르침'입니다. 자연과의 만남을 통하여 자연이 우리에게 주는 이로움과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민물고기가 우리에게 주는 가르침에 대해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계곡이나 하천에 가면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물고기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네, 피라미지요. 민물고기에 관심이 아무리 없는 사람이라도 피라미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곡이나 하천에서 작은 물고기를 만나면 생김새에 관계없이 피라미라고 부를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피라미는 민물에 사는 다양한 물고기 중 한 종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작은 물고기를 그저 피라미라고 부르게 된 것은 피라미가 그만큼 많기 때문일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하천, 호수, 강을 비롯한 민물에 서식하는 물고기 중에서 개체수가 가장 많은 종이 피라미인 것은 분명합니다.

피라미는 수질오염이나 환경 변화에 적응력이 매우 강합니다. 환경파괴 등으로 수질이 악화되어도 다른 물고기들과는 달라 변화를 빨리 하기 때문에 개체수가 가장 많은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피라미에 버금갈 정도로 개체수가 많은 민물고기가 있습니다. 갈겨니라는 친구입니다. 하천에서 다양한 채집도구를 통해 채집을 해보면 특별한 서식지를 제외하고는 언제나 피라미와 갈겨니 둘 중 하나가 우점종의 자리를 차지할 만큼 피라미와 갈겨니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민물고기라 할 수 있습니다.

갈겨니는 1~2급수를 대표하는 물고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상류나 중상류의 수면이나 중층과 같이 맑은 물에서 삽니다. 나무가 무성한 물가를 좋아하며 주로 곤충을 잡아먹습니다.

피라미와 갈겨니는 모두 잉어목 황어아과에 속하는 물고기로서 속(屬)도 같기 때문

에 언뜻 보아서는 구분하기가 쉽지 않지만 몇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 중의 대표적인 것으로 줄무늬를 들 수가 있습니다.

갈겨니에는 세로 줄무늬가 있습니다. 어류에서 줄무늬의 방향을 말할 때는 머리를 위로 두고 꼬리는 아래에 둔 상태에서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진에서처럼 아가미 부근에서 꼬리 바로 앞까지 몸의 중앙을 따라 연속적인 선으로 나타나 있는 갈겨니의 줄무늬는 가로 줄무늬가 아니라 세로 줄무늬가 됩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피라미에는 가로 줄무늬가 있습니다. 줄무늬가 갈겨니처럼 선으로 나타나는 연속적인 무늬 하나가 아니라 띄엄띄엄 떨어져 여러 개 있는 것이 피라미의 특징입니다.

산란 시기는 둘 다 6~8월 이며, 산란습성은 황어아과에 속하는 물고기들의 특성을 그대로 나타냅니다. 이들은 바닥이 모래로 되어 있고, 모래 위에 주먹 만 한 크기의 자갈이 있는 곳을 산란터로 정합니다. 암컷이 알을 낳으면 순식간에 수컷이 접근해 정자를 방사하는데, 수정이 일어난 알들은 서로 엉겨 붙지도 않고 돌에 붙지도 않은 채 곧바로 모래 속으로 미끄러지듯 숨어 들어갑니다. 수족관에서도 산란에 필요한 환경을 잘 만들어주면 산란이 일어납니다. 부화가 일어난 치어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위험한 상황이 벌어지면 모래 속으로 바로 몸을 숨겨 유약한 자신을 지켜냅니다.

피라미와 갈겨니가 특별히 관심을 끄는 부분은 서식지와 먹이에 대한 특성입니다. 피라미와 갈겨니는 동해로 유입되는 강원도의 하천을 제외한 우리나라 전체 담수역에서 서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갈겨니는 계곡이나 하천의 상류지역에 주로 서식하며 피라미는 하천의 중류지역에서 주로 생활합니다. 먹이에도 차이가 있어 갈겨니는 수서곤충만을 먹이로 삼지만 피라미는 수서곤충 외에 돌과 모래에 있는 유기물과 작은 미생물들 까지도 먹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갈겨니와 피라미가 서식지를 공유할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이들이 서식지를 공유할 때 수서곤충, 유기물, 미생물 등을 모두 먹이로 삼는 피라미는 갈겨니의 유일한 먹이인 수서곤충은 먹지 않고 유기물과 식물성 플랑크톤 등의 미생물을 먹는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피라미가 자신의 먹이 일부를 기꺼이 내어줌으로써 먹이경쟁으로 인한 불필요한 충돌을 피하며 서로 잘 사는 길을 택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이러한 특성이 피라미와 갈겨니가 우리의 하천에서 우점종으로 공존할 수 있는 진정한 원동력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갈겨니와 피라미와는 다르게 우리의 삶은 경쟁과 충돌이 불가피합니다. 서로 원하는 목표와 대상을 두고 서로 물고 뜯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 물고기만도 못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우리들도 평화롭게 살기 위해 피라미도 할 줄 아는 배려와 양보라는 것에서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보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사진에서 보여 지는 이 나무를 혹시 아시나요? 이 나무는 소나무의 일종으로 나이가 정확히 측정된 나무 중 가장 오래된 나무인 메두셀라(Methuselah)라고 합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의 인요국립공원에서 자라고 있습니다. 이 나무의 나이는 몇 살 이기에 가장 나이가 많은 나무라고 할까요? 네, 무려 4,766살이라고 합니다. 이 나무뿐만이 아

나라 지구상에 살아가는 나무들 일부는 우리 인간의 삶을 뛰어 넘는 아주 위대한 생명력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백 년, 많게는 수천 년을 살아온 나무 앞에서 인간의 장수는 이야깃거리가 되지 못합니다. 신은 우리에게 100년 안팎의 시간만을 허락하였지만 나무에게는 훨씬 많은 세월을 용납하였습니다. 나무는 인간보다 더 많은 것을 알고 있으며, 더 많은 것을 보았으며, 더 많은 이야기를 품고 있습니다. 동물과 달리 위험이 닥친다고 도망을 가거나 숨어버릴 수도 없지만 1000년 이상 사는 나무도 많이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자신의 상황에 불만을 가지거나 슬퍼하지 않고 모든 것을 내어주며 평생을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나무는 우리에게 어떤 가르침을 줄까요? ‘인내와 나눔’이라는 가르침을 줍니다. 그 곳이 자신이 원한 곳이 아니더라도 씨앗이 떨어져 싹이 난 후부터는 그 한 곳에서 오래오래 버티며 살아갑니다. 또한 잎은 애벌레에게, 가지는 새들에게, 꿀은 꽃들에게 열매는 동물들에게 모두 나누어줍니다. 나누어야 만이 모두 함께 풍성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심지어 죽어서도 제 몸을 내놓습니다. 썩어가는 나무에서는 여러 생물들이 터를 잡고 살아갑니다.

나무는 최고가 되기 위해 노력하지 않습니다. 그저 현실에 만족하며 나누고 베풀며 살아갈 뿐입니다. 나무가 자신을 위해 그늘을 만들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도 혼자서는 어떤 행복도 만들지 못합니다. 서로 그늘이 되어주며 희망을 나누고 살아가면 더욱 살 만한 곳이 되지 않을까요?

우리 조상들은 사람과 자연을 하나의 살아있는 생명체로 인식하고 자연을 천지부모라 하여 공경의 대상으로 이끌어 올렸습니다. 또한 생명이 있는 자연이 신성함을 가지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믿음을 바탕으로 자연을 함부로 대하거나 훼손하지 않았습니다. 자연을 기반으로 자연에서 모든 것을 얻었던 옛사람들이 자연을 신성시 했던 모습, 어쩌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먼저 배워야 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또한 자연은 미래의 우리 후손들에게 그대로 보전하여 전해주어야 할 소중한 유산이기도 합니다.

자연을 거스르지 않고 그 안에서 자연스레 존재하며, 자연 속에서 서로 돕고 기대고, 자유로운 시간을 실컷 누리면서 서로 양보해 좋은 것을 생산하고 창조하게 되면 서로 조화롭게 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의 세대는 어쩌면 문명의 이기를 누리는 마지막 세대일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다음 세대는 이러한 우리들의 즐거움의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이는 이미 부담을 안고 우리의 자손들이 태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더욱 안타까운 것은 아직까지도 문제의식조차 없는 사람들이 일상에는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어지러운 도심 속에서 편안하고 간편한 것만을 추구하며 자연을 멀리하는 현대인들에게 자연과 함께하는 삶이란 상상하기 힘든 것입니다. 하지만 변함없는 사실은 자연은 인간에게 큰 영향을 미치고 있고 인간이 자연에 끼치는 영향 또한 크다는 것입니다. 인간

은 자연 없이 살아갈 수 없습니다. 고도로 발달된 과학이 가져다주는 편안함에 몸과 마음이 병들어가고 있는 현대인들에게 건강을 되찾게 해주는 것은 오직 자연 뿐입니다.

봄은 봄이어서 좋고 여름은 여름이어서 좋고 가을은 가을이어서 좋고 겨울은 겨울이어서 좋은 사계절이 있어 그 계절을 즐길 수 있는 자연의 품에 안겨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행운입니다. 이렇게 귀중한 삶의 공간인 자연을 우리 모두 조금 더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이 필요할 것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까지 이곳 백양골에서 ‘자연의 가르침’에 대하여 이야기를 들으셨습니다. 어떠세요? 오늘 저와 함께한 시간이 유익하셨나요? 해설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그냥 무심코 지나쳤던 자연물이 새롭게 보이지는 않으세요?

오늘 해설은 이렇게 마무리 하겠습니다.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돌아가시는 길에 인근에 있는 남창지구에도 가보시면 좋은 시간이 되실 것입니다. 편백나무, 삼나무로 이루어진 삼림욕장이 조성되어 있고 시원한 남창계곡도 있어 탁족을 즐기시기에 좋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남은 시간 즐겁게 보내세요.

* 참고 문헌

물고기랑 놀자/ 이완옥 저, 성인권 그림 / 봄나무

사진자료



피라미



갈겨니



메두셀라(Methuselah)

